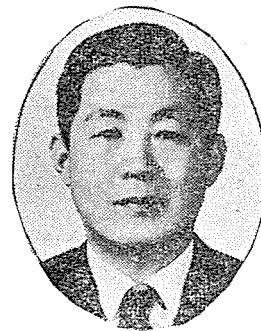


<工業部門>

一般人의 出品資格 再考해야



池 哲 根 教授
서울大學校工科大學

今年度의 第20回科學展覽會에 出品된作品은 物理, 化學, 地學, 生產, 農水產 및 工業등의 6個部門에 걸쳐서 총195件이 있다. 이중에서 工業部門은 45件이며 이것을 分野別로 나누면, 科學教材分野가 2件, 產業技術分野가 43件이다.

이것을 出品者들의 구분으로 나누면, 教師出品이 18件이며, 이중에 中高等教師出品이 12件, 初等教師出品이 6件으로 되었다.

한편 學生出品은 겨우 3件으로, 中等學生出品 1件, 初等學生出品이 2件으로 되었다.

나머지 24件이 一般人의出品으로 되어 있다. 審查基準은 創意性, 實用性, 努力, 表現力의 順位로 區分하여 優, 良, 可의 3段階로 評價하되, 教師및 學生作品은 費用을 많이 들이지 않은것으로서 教科課程과의 關聯性에 重點을 두어 評價하였다.

昨年の 19回展覽會에 이어, 今年에도 審查委員으로委任된 筆者の 소견은, 教師出品의 水準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나, 一般人 및 學生의出品은 뒤따라져 가지고 있는 인상을 갖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教師나 學生作品은 各道에서豫備選拔되어 온 탓인지 비교적 좋은作品이 많았지만 一般人의出品은 임의로 出品할 수 있기 때문인지 水準이 低下한作品이 많아서 工業分科委員會에서는 展示資格도 출수 없다는데 의견이 모아져서, 落選作品을 16件이나 결정하였다. 一般人의出品資格에 대해서는 再考의 餘地가 있다고 본다. 科學教材出品中 특기 할 만한 것은 教師作品인 工業學校電氣科實驗用인 電子回路裝置를 들 수 있다. 回路의 素子을 바꾸면서 文教部 實習教材中 52종류의 實驗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裝置當 20萬원 정도로價格도 저렴하여 널리 보급될 것이다 시료된다. 이作品은 分科委員會에서는 優秀作品으로 추천되었으나, 分科委員會에서 아깝게도脱落이 되고만 애석한作品이었다.

產業技術分野에서는 에너지開發이 6件이며 分科委員會에서 特賞으로 추천하여 最終會議에서 文教部長官賞인 特賞으로當選된 것으로서 에너지開發에 관한研究로, 題目은 優, 良, 可의 3段階로 우라늄酸化物을 염은 研究로서 앞으로 開發되어야 할 核燃料의 國內資源處理에 관한 基礎實驗과 低質炭의 利用關係에 기여한 우수한作品이었다. 中等教師로 있으면서 바쁜 教育時間에 耗애하여 國內研究所 및 大學校의 有機的關連으로 이룩한 業蹟은 높이 評價하고 싶다. 이외에 太陽熱利用이 3件 風力開發이 1건이었다.

이外에도 國內原資材利用研究가 5件으로 鐵筋의 代替材로서 竹材를 試圖한것이 특기할 만하고, 原資材開發研究로는 意欲의 研究家로서 지난回에도 주를 관계 연구로 出品하였든 서울工高教師 이철재씨의 超듀랄루민 및 超硬度 デュラルルミ 合金板材質에 관한研究가 특기할 만하며, 分科委員會에서 特賞을 겨룬作品이였다.

加工機械開發作品으로는 대나무의 手加工을 機械加工으로 성공시킨 마죽기는 地域產業社會開發에 공헌한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이외에 5件이 제출되었다.

기타研究로는 立體駐車場의 模型으로 併行方式을 이용한 좋은 아이디어로 그의 실용이 아쉬운作品이었다.

初等作品이라 보기보다는, 教師, 學生의 共同作品, 한발 더 나가서, 地域社會共同作品이라 할 수 있는 疑問函 속에서 얻은 創意, 創作品에는 筆者は 그만 이들의 科學化運動에 감동하였다.

끝으로 바쁜 教育에 시달리면서도 研究에 全念한 教師들의作品을 대할 때 無限한 希望感을 갖게 되었으나 微微한 學生出品에는 失望을 느꼈고, 科學展覽會의 본뜻에 어긋나는 一般人의 일부作品을 심사할 때에는 우울을 당하는 느낌마저 들었다.